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4. 11. 18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11~11/15)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트럼프 차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미 소비자심리 개선 등에 달러 강세 나타나면서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강달러에 연동되며 1,400원대에 진입
- 중반,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달러 강세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영향에 장중 1,410원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
- 후반, 예상을 웃돈 미 CPI와 공화당의 양원 장악 소식에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파월 의장 발언에도 국내 증시 반도체주 강세 속 외국인 자금 유입된 영향으로 추가 하락하며 1390원대에서 마감

달러/원 전망

- 견조한 미 소비지표와 동 영향에 따른 연준 당국자들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 등이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예상
- 하지만, 트럼프 랠리가 주춤하고 있는 측면과 대외적 엔화 약세 방어에 대한 일본 정책 당국자들의 구두개입성 언급 등이 달러 강세 제한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 이러한 상기 요인들의 상충이 다소 크게 나타날 한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원은 1,390원 초반 흐름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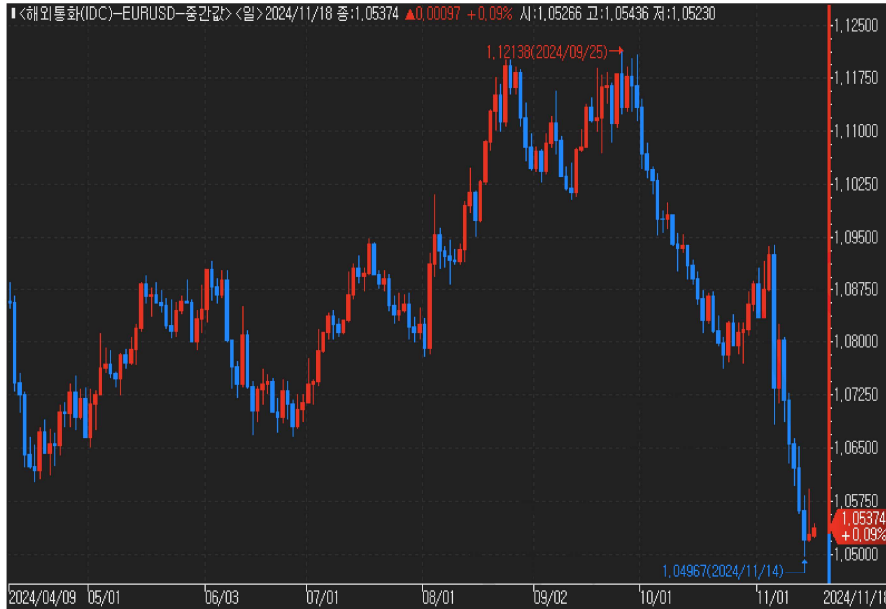
| 주간시가 | 주간고가 | 주간저가 | 주간종가 | 주간등락 |
|---------|---------|---------|---------|------|
| 1,396.0 | 1,410.6 | 1,392.5 | 1,398.8 | +2.8 |

예상거래범위

1,385원 ~ 1,405원



엔·유로화 동향 (11/11~11/15)



유로화 동향

- 주초, 트럼프의 내각 인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정책이 유로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독일과 유로존 경제심리지수 악화에 유로지역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신중론과 독일 정치 불확실성에 유로 약세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1.05달러선으로 하락
- 후반, ECB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약세를 시현. 이어 주 후반, 예상을 웃돈 독일 도매물가 지수에 회복세를 보이며 소폭 반등 후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 속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되면서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트럼프 차기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약세 흐름을 유지
- 중반, 미 CPI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가운데 레드스윙 확정에 강달러 흐름 이어지면서 큰 폭의 약세를 보임
- 후반,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과 일본 3분기 GDP 둔화 소식에 약세폭이 확대됨. 이어 주 후반, 일본 외환당국의 연이은 구두개입성 발언에 개입 경계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154엔대로 되돌림 보이며 마감

| 주간시가 | 주간고가 | 주간저가 | 주간종가 | 주간등락 |
|--------|--------|--------|--------|---------|
| 1.0718 | 1.0728 | 1.0497 | 1.0528 | -0.0190 |

| 주간시가 | 주간고가 | 주간저가 | 주간종가 | 주간등락 |
|-------|-------|-------|-------|------|
| 152.5 | 156.8 | 152.6 | 154.3 |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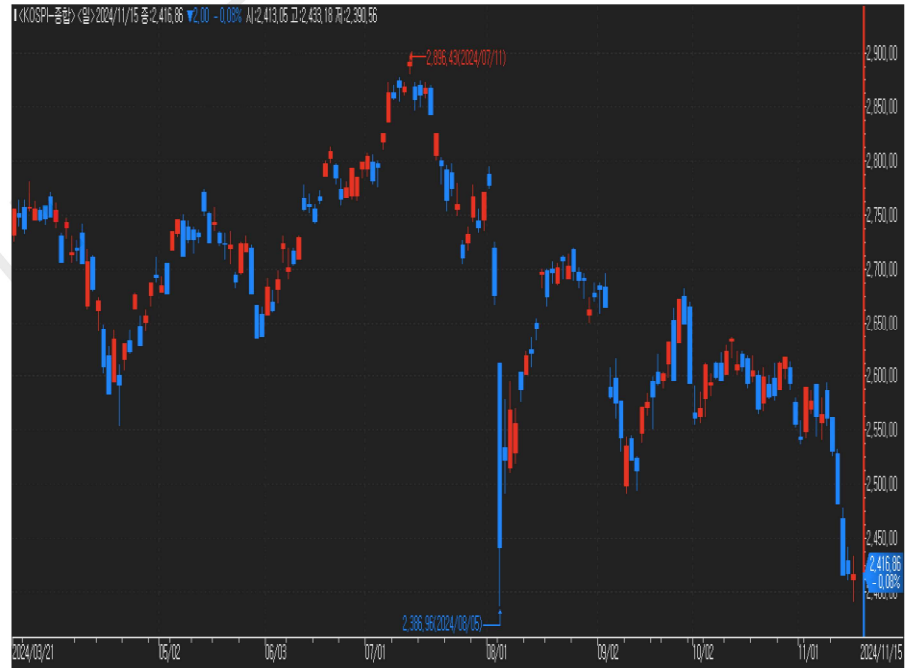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11~11/15)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대선을 소화하면서 대외 금리에 연동 흐름 나타난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상승 출발. 이어 미 금융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ECB에서 정책금리 100bp 이상 인하 가능성의 견해 속에 국내 주요 전망기관의 내년 성장률 하향 소식 등에 따른 외국인 국채 선물 매수 강화로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미국채 금리 상승 흐름을 반영했지만, 국내 고용 부진 등에 따른 성장세 우려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전반적 상승 흐름 전환
- 후반 들어, 트럼프 당선과 함께 레드스위프 현실화에 따른 트럼프트레이드 지속 가능성 영향으로 장기국고채 시장 약세에 영향을 미쳤지만, 10월 미 CPI가 2.6%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점이 크게 부각되며 금리 하락에 영향. 이어 주 후반, 파월의장의 달러스 연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한 점이 매파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며 국내외 금리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 실망감 반영 속 미 공화당의 레드스위프 가능성 증대 등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하락 출발. 이어 반도체 업종의 TSMC 중국향 수출 규제 영향에 동반 약세 보인 가운데 다가올 고금리, 강달러 우려 등이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 미치며 하락 지속
- 중반 들어, 트럼프 당선 영향이 이어진 가운데 강달러, 고금리 우려 지속 속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영향 등으로 코스피는 2,400 초반까지 하락
- 후반 들어, 전일 낙폭 과대 인식 등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되었지만,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4만원대에 진입하는 약세에 강보합 흐름 보인 후, 주 후반, 미 재무부의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이슈와 트럼프 정보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등에 따른 이차전지 업종 강한 하방 압력 등으로 약보합 전환하며 마감